



사이버 테러에는 이렇게 대응한다

사이버 테러 예보 및 경보 시스템

- 외국 유관 단체의 정보와 국내 신고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국민들에게 즉시 공지한다. (정보통신부, 국가정보원)
- 행정기관은 전부서 및 산하 기관과 소속 기관에 대비 상황을 즉시 알린다. (각급 기관)
-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의 예·경보망 및 시큐어메신저 등을 통해 대응 요령을 신속하게 전달한다.
- 해킹 발생시 침입 경로를 즉시 차단하고, 필요시 피해 시스템을 네트워크로부터 분리한다. (각급 기관)
- 바이러스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상한 이메일(e-mail)을 삭제토록 하고, 백신을 적기에 개발, 공급할 수 있도록 백신업체와 긴밀한 공조 체제를 유지한다. (정보통신부, 각급 기관)

사이버 테러 신고 체계

- 사이버 테러 신고와 상담
국가정보원 정보보안119: 전화02-3432-0462(<http://www.nis.go.kr>)
한국정보보호진흥원: 전화118(<http://www.cyber118.or.kr>)
- 사이버 테러 수사
경찰청: 사이버테러대응센터(<http://www.police.go.kr>)
대검찰청: 인터넷범죄수사센터 02-3480-3600(<http://www.icic.sppo.go.kr>)
서울지방검찰청: 컴퓨터수사부(<http://www.icic.sppo.go.kr>)

